

# 80년대 '북 디자인'의 현단계

## 교보문고 제정 제1회 '북디자인' 수상작들

교보문고(대표이사 慎東宰)가 국내 처음으로 마련한 제1회 '북디자인' 공모전에서 「한국의 탈」과 「한국의 탈춤」(행림출판사)을 디자인한 鄭丙圭씨(42·정디자인 대표)가 대賞(상금 200만원)을 차지했다. 지난 10여년간 북디자인이란 비교적 생소한 분야에서 꾸준히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온 鄭씨는 대상 외에도 아이디어상과 장려상 4점을 휩쓸어 그 독보적인 위치를 재확인했다.

지난 1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첫 '북디자인' 공모전에는 168개 출판사의 도서 248점이 응모, 그중 대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10점, 아이디어상 1점 등 모두 14점이 입상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 3점을 입상시킨 民音社(대표 박맹호)와 입상작 3점의 색분해·제판·인쇄를 도맡았던 흥진프로세스 대표 이희연씨에게 각각 특별기여상이 주어졌다.

이번에 본심사를 맡았던 趙英濟(서울대 미술대학장)·李重漢(출판평론가)씨 등 5인의 심사위원들은 "표지디자인만이 아니라 활자의 모양·크기, 행간이나 여백을 포함한 본문 구성 디자인과 책 전체의 미적 감각, 인쇄효과 등을 감안한 출판사제의 선택에 이르는 토털디자인적 노력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고 심사위원칙을 밝히고 "한국 북디자인 수준의 현단계를 점검하는 이같은 행사가 우리 출판문화의 중심거점들에 보다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보문고는 지난 10월24일 시상식과 함께 예심통과작 92점의 전시회를 매장내의 '이벤트 홀'에서 가졌다.

### 대賞에 정병규씨...아이디어賞도 수상

이번 '북디자인'의 입상작과 선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상 「한국의 탈」 「한국의 탈춤」(행림출판사·정병규 디자인)=대형 사진판도서로서 사진작가 김수남의 노작들이 기반을 이루고 있지만 북디자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준다. 내용성격에 맞도록 고안된 단순한 형태의 한국적 이미지의 창출은 커버·양장표지·케이스 등에 효과적으로 배치돼 있으며, 클로드·면지 등의 색채 선택도 적절하다.

#### ◇우수상

▲「석굴암」(열화당·차명숙 디자인)=작은 판형에 검은 글자와 금색 선만으로 이루어진 정제된 표지가 특별한 인상을 조성한다. 특히

석굴암 사진들의 인쇄효과를 극대화시킨 단색·다색도인쇄의 노력은 고급인쇄의 모범이다.

▲「청춘의 도망」(청하·편집부 디자인)=원저자인 헤세의 사인과 스케치얼굴 그림만으로 표지를 구성, 헤세의 이미지와 그의 시들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아이디어상 「論語新解」(민음사·정병규 디자인)=논어라는 고전적 권위서를 오늘에 맞게 새로이 해석한 이 책은 표지디자인이나 본문편집에 있어서도 고전적 권위를 존중하며 오늘의 감각에 적합하도록 아이디어를 구사했다. 옛 디자인의 구성을 본뜬 듯하면서도 선의 굵기와 색의 선택, 페이지 숫자의 위치선정 등 비범한 감각을 보여준다.

#### ◇장려상

▲「나누어진 하늘」의 (민음사·정병규 디자인)=「민음의 문학」 시리즈로서 4×6판 양장본이라는 체재의 선택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양장용지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서정적 일러스트 및 배색을 효과있게 함으로써 시장성을 획득하고 있다.

▲「에로티즘」(민음사·정병규 디자인)=본문 외곽부분을 대담하게 검은색 인쇄로 처리함으로써 흰색 종이와 검은색 활자인쇄라는 일상적 약속을 충격적으로 반전시킨 신선함을 준다. 표지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붉은색 역시 검은색과의 배색에 가장 효율적인 색으로 쓰였다.

▲「美人別曲」 전6권(고려원·편집부 디자인)=고전적인 일러스트레이션 구성이다. 조선조 미인을 보여주는 낯익은 여인좌상 그림 하나를 선화지 조각으로 모자이크 함으로써 현대적 감성을 투여하고, 이 하나의 그림을 각각 6권에 나누어 다른 색의 변화를 줌으로써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孫素熙문학전집」(나남·정병규 디자인)=문학전집의 일반적 디자인형식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평범하고 단순한 단행본 모습이 되 의도적인 여성다움을 효과있게 창출했다. 드물게 사용되는 옅은색 계열의 바탕색을 중심이미지로 하여 수채화적 도안을 시도함으로써 작가가 젊은 시절을 살았던 시대의 감성적 분위기를 전달해 준다.

▲「姓氏의 고향」(중앙일보사·출판국 디자인)=책의 주제와 2,560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에서 오는 헨디캡을 본문의 단순변형과 간결한 선의 사용으로 훌륭히 극복한 편집레이아웃의



제1회 '북디자인'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 우수상, 아이디어상을 받은 책들.

성과가 돋보인다. 다만 장정 및 제책의 수준이 함께 뛰어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오덕교육일기」(한길사·편집부 디자인)=이 책의 표지는 우리에게 새로운 형식이다. 제목과 삽화와 인용된 본문의 한 덩어리, 그리고 다시 작은 그림들은 잡지의 기사가 시작되는 첫면 같은 구성이면서 저자의 글의 분위기를 잘 전달한다. 쉬운 구성이지만 나름대로 균형감을 잃지 않고 있다.

▲「윤범모시집-불법체류자」(열화당·기영내 디자인)=판형과 본문구성이 시집으로서의 실험적인 디자인이다. 특히 판화적 표지처리와 표지 커버의 안쪽으로 접힌 그림이 면지의 사진과 연결되어 시집의 내용이미지를 연상케 한다.

▲「북녘 사람들」(눈빛·편집부 디자인)=1959년 프랑스 웨이출판사가 간행했던 영상 기획출판물의 번역판으로서, 원본과 시각적 이미지가 전혀 다른 한글 字體에 맞추어 원본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배열에 성공하고

있다.

▲「세계영화사」(이론과실천·편집부 디자인)=靜의 이미지로 구성된 책이다. 가는 선과 작은 글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표지에 쓰여진 사진 역시 최소한의 크기이다. 특히 짙으며 밝은 회색으로 인쇄된 면지에 은색으로 인쇄된 책제와 저자의 설명문은 고급문화의 우아함을 지니고 있다.

▲「소설의 발생」(열린책들·편집부 디자인)=특별한 개성을 가진 표지디자인은 아니지만, 무엇이 쓰여 있는 책인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간소한 표현들이 효과적으로 집합되어 있다. 책의 제목, 이를 보완하는 추상적 얼굴그림과 긴 설명문은 縱書로써만의 표지구성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